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 7. 15.(월) 10:00

#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4년 7월 3일
- 회부일자: 2024년 7월 4일

3. 제안이유

-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단위 충북행복교육지구를 지역 간 상호개방하고 연계하여 온마을배움터로 확장·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공교육 혁신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발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기존)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용어 신설, 변경
  - 온마을배움터 용어 신설
  - 마을,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생태계 등의 용어는 온마을배움터로 확대

-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는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로 변경
- 온마을배움터의 상호 개방 조항 신설
- 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4년→1년)

## 5. 검토의견

### 가. 조례 개정 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학령인구) 감소<sup>1)</sup>와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sup>2)</sup> 극복을 위해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정책<sup>3)</sup> 등을 반영하여, 지역단위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행정구역 내에서 지역단위로 운영하던 현행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지역 간 상호 개방과 연계, 협력을 통하여 지역교육의 장과 교육 주체를 확대하고자, 지역단위 ‘행복교육지구’ 중심의 ‘마을교육공동체’ 명칭을 ‘온마을배움터’로 변경하여, 지역 간 경계를 넘어 교육환경이 확대된 ‘온마을배움터’가 공교육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견인하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충북형 마을교육공동체인 행복교육지구는 교육(지원)청과 시·군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 주체와 민·관·학

1) 2023년도 합계출산율 0.72명,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지.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

2) 정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2020년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다음해 6월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후, 2021년 10월 19일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 하고, 2023년 1월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2024년 7월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충북은 11개 시군 중 제천·단양·보은·옥천·영동·괴산 6곳이 인구감소 지역임.

3) 교육발전 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현 정부 주도의 교육부 정책임. 교육부는 2023년 12월 6일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2024년 2월 2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31개를 지정하여 시범운영 중임.

현재 충북은 충주·제천·옥천·진천·음성·괴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청주·보은·단양·영동·증평은 2차 공모 중에 있음.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게 운영하는 교육활동임  
 충북 행복교육지구는 ‘지역별 교육 자원 발굴 및 민·관·학 교육협력  
 추진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었던 충북행복교육지구 구축기 1.0(2017~2020)을  
 거쳐, ‘학교-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역과 참여 대상을 확대한  
 온마을배움터 행복교육지구로의 질적 도약’을 중점 과제로 한 충북행복  
 교육지구 성장기 2.0(2021~2024)이 현재 청주, 충주, 제천, 단양, 증평,  
 괴산, 진천, 음성, 보은, 옥천, 영동 11개 시군에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1:1 대응투자로 추진되고 있음

### 【행복교육지구 지자체 · 교육지원청 간 대응투자 현황】

(2024. 현재)

청주	충주	옥천	괴산	제천	진천	증평	단양	보은	영동	음성
각 7억	각 5억	각 4억	각 3억5천	각 3억			각 2억 5천			

- 이에 따라 조례명을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로 변경  
 하고, ‘온마을배움터’ 용어 정의와 ‘온마을배움터 지정’ 및 ‘온마을  
 배움터 상호 개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온마을배움터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들을 수정·보완하여,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교육환경 변  
 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온마을배움터 구축과 운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 사료됨

##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을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 것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심화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와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교육지구사업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어,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질적 재구조화에 따른 교육지구 사업의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과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됨

\* 충청북도교육청은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교육력을 높여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충북 교육지구사업의 질적 재구조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지구 명칭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2023년 10월 학부모, 교직원, 도민 등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교육지구 명칭 변경 찬성이 81.5%로 나타남

-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이 공교육 강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학교, 마을, 대학, 기업,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이 확대된 교육활동인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온마을배움터 정책의 교육적 의미와 사업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조에서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를 ‘다양한 기관 및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로 변경하여

온마을배움터 참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지역경계와 교육대상, 참여대상이 확장된 의미를 담아 추진하고자 하는 온마을배움터 정책의 취지와는 달리 온마을배움터 참여 대상이 ‘기관’과 ‘단체’ 중심으로 한정되어 해석될 우려가 있어 온마을배움터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마련 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에는 ‘온마을배움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마을교육공동체’, ‘마을’, ‘충북행복교육지구’, ‘교육생태계’,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삭제하였음. 이에 따라 안 제1, 4, 5, 6, 9, 10, 11조에서도 관련 용어를 삭제하거나 온마을배움터로 변경하여, 새로운 충북형 교육지구 정책과 사업으로서 ‘온마을배움터’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기존 조례의 ‘마을교육공동체’, ‘충북행복교육지구’, ‘교육생태계’에 대한 정의와 개정 조례의 ‘온마을배움터’에 대한 정의가 유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온마을배움터’가 기존의 ‘마을교육공동체’, ‘충북행복교육지구’, ‘교육생태계’의 의미를 흡수·통합하여 교육활동의 지역경계와 참여 대상이 확대된 의미를 담아 충청북도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새롭게 재구조화한 개념임을 명확히 하고, 온마을배움터 사업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는 홍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는 4년 단위로 수립했던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사회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 사료됨

-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온마을배움터 지정과 운영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온마을 배움터를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통하여 지역별 온마을 배움터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상호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온마을배움터 지정과 행정구역간 상호 개방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과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온마을배움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관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실행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9조에는 기존의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온마을배움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단체장과 협의와 학교, 마을, 대학, 기업,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통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는 실제 지역사회에서 온마을배움터의 구축과 교육활동, 실효성 있는 교육적 성과를 이끌어 내며 온마을배움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온마을배움터 사업 추진의 실질적 중심 조직이라 사료됨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원센터의 설치와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부칙 제2에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로 한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둔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중심으로 한 충북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들이 온마을배움터 사업으로 통합·흡수 되어 연속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사료됨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통하여 공교육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기하고자 지역단위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충청북도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을 지역 간 상호 개방과 연계를 통하여 교육지구 사업의 지역과 참여주체, 교육 대상이 확대된 ‘온마을배움터’ 정책으로 재구조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 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조문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 관련 사전 설문조사 및 조례안 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과 충청북도교육청 법제 심의를 거치는 등 필요한 입법 절차를 준수



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

- 다만, 온마을배움터의 참여 대상이 대학과 기업 등으로 확대되는 만큼, 참여 대상의 목적과 교육활동 및 교육적 성과가 공교육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온마을배움터 정책의 교육적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온마을배움터 지정 및 운영 시 세심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역별 온마을 배움터 지정·설치와 운영, 지역별 온마을 배움터 상호개방,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온마을 배움터’ 정책 사업 추진의 핵심 사항들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업무 협약 또는 협의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온마을배움터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원만한 소통과 내실 있는 행·재정적 지원, 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실행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